

대학생 창업교육 수업유형에 따른 창업의지 영향요인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권기인*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대학교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과목 신설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창업교육보다 실제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창업강좌가 교육의 효과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창업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Michael H. Morris(2014)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기업가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 협업활동, 체험학습 요소 등을 접목시킨 몰입적 참여형 체험학습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만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내 창업교육 유형을 실전형, 혼합형, 특강형으로 구분하여 창업교육 수업유형에 따른 창업의지 영향요인인 교육만족도,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창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창업교육의 수업유형이 교육 수강 후 창업의지 영향요인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이 지향해야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표준모델의 제안하고,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전 세계적인 불황과 고용불안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도전과 기회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주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대학 내에 창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창업문화의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업의지 및 창의성, 기회인식,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 교육구성,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창업진흥원에서 규정한 대학 내 창업교육의 유형(실전형, 혼합형, 특강형)별 창업교육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관계자들과 창업교육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인 창업교육 유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 내에서 다양한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창업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내에 개설된 대학생 대상 교과과정 교과목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와 창업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만족도 평가, 창업교육 후 창업의지의 변화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창업교육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창업진흥원에서 규정한 대학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 유형(실전형, 혼합형, 특강형)이 수강생들의 창의성, 기회인식,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이 창업의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로 배제하여, 창업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이나 교

*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kgiin@kookmin.ac.kr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yun88@kookmin.ac.kr

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창업교육 유형이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효과적인 강의유형과 교육내용 구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성, 기회인식, 자기효능감, 교유만족도, 창업의지에 높은 성과를 보이는 좋은 창업교육의 표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2.1.1 창업교육 수업유형

창업교육 수업유형은 창업진흥원이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교과과정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실습형, 혼합형, 이론형(특강형)으로 나누었다.

실습형 창업강좌의 경우는 전체 커리큘럼의 70%이상을 팀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을 포함하는 체험형 실습으로 구성하며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팀별로 창업 아이템을 발표 및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유형이다. 교수자는 정보 전달의 역할보다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창업 아이템의 보완을 위해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수강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업유형이다.

혼합형 창업강좌는 팀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수자가 창업 관련 정보를 강의형태로 제공하는 형식의 수업이 전체 수업의 주가 되며, 팀 프로젝트는 과제형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부여되어 교육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교육종강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유형이다.

이론형(특강형) 창업강좌는 집합강의식 유형으로 본 논문에서는 특강사의 창업경험을 전달하는 창업가 특강 위주의 수업으로 창업자들의 창업경험,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전달하는 대형 집합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식 전달 위주의 창업교육은 현 대학교 내에서 지양하는 방식으로 이론형 창업강좌의 교육효과가 낮음이 선행 논문들에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창업자들이 전달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특강형 창업강좌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1.2. 국내 창업교육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및 태도를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모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자들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창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창업가는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onstadt, 1985; Garavan & O'Connell, 1994; Gibb, 2002).

창업교육은 교육생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에 관한 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교육내용 및 교수법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황보윤·양영석(2012)는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창업교육 시스템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창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검증된 창업교육 콘텐츠와 창업교육 강사진이라고 하였다. 대학교에서는 창업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한 양질의 창업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교육 효과에서 주목받는 요인으로 의지는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로 특정 무언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에 관심을 쏟는 마음의 상태이다. 개인이 바라던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향의 정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지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최고의 예측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Bagozzi, et al.,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의지는 창업 활동을 예측 및 창업교육 효과성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쳐 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교육의 수업유형 별 창업교육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 서비스 제공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3. 창업의지 영향요인

2.3.1 창의성

기존의 대학교육은 획일화되고 일방적인 정보전달형의 교육이 많지만, 창업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혁

신적 교수법, 창의적, 참여형, 문제해결 중심,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창의성 역량은 21세기 핵심 인재 역량에서 중요한 특성이며, 지식정보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선정되었다(한국 교육개발원, 2012). 창의적 사고는 문제, 어려움, 결함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측하고 가설을 수립하여 그 부분을 검증하고, 수정 후 재검증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Torrance, 1959). Runco(1991)는 창의성에 대해서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능력에는 문제해결과 발견을 위한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황성용(2013)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지적 능력의 주요요인인 확산적 사고를 위한 훈련, 문제해결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습할 것을 강조한다.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창의적인 시작으로 직면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인 창의성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이며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이미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대학생 창업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재,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

2.3.2 기회인식

기회인식은 창업자의 창업의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잠재적인 창업자의 경험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최근 창업자들이 초기에 창업기회를 발견하는 기회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창업과정은 사회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조직하는 것이다.(Shane, 2003). 기회란 다양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우수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장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개인이 기회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능력은 앙트러프러너십의 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이정란, 2016). 기회인식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자원 또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고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문수영&황보운, 2011) 즉,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미사용 자원 또는 역량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회인식은 실제기회와 인지기회로 구분할 수 있고, 기회를 인지하고 있으나 기회를 활용할 능력이나 창업동기가 없을 경우에는 창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다(윤현덕, 2003).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해 대표 연구자인 Bandura(1986)는 자신에 관한 역량과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행동,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데 교육영역에서는 학업자기효능감과 창업영역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된다.

양준환(2014)은 창업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반복, 숙달된 경험과 성과로 과업달성을 위해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등을 통해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고, 개인이 자기 효능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한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진로행위와 관련성이 높으며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한 진로행위 중의 하나인 창업에 도전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창업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핵심목표인 창업의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창업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의 교육효과 및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2.3.4 교육만족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은 재구매의 반복 및 제공사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만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강생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Lock(1976)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습에서의 만족은 ‘정서적반응(emotional response)’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내적과정에서만 발견되며 개인이 교육에서의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얻었을 때를 의미한다. 박수민(2011)은 교육만족도를 개인이 교육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교육에 대한 태도, 인지, 정서, 행위, 의욕과 같은 반응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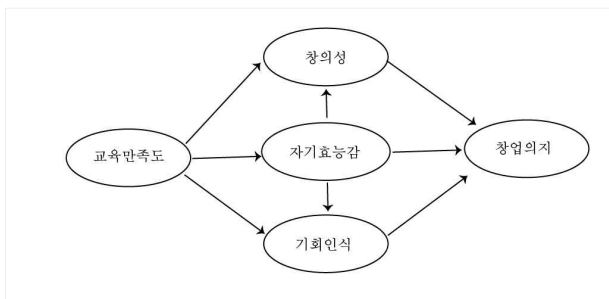
곽동신(2016)은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을 수료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와 그 만족이 창업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교육 만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제공받은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교육 수강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감과 도움을 얻었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교육의 교육 효과로 대변되는 창의성, 기회인식,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의 목표인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유형을 조절효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대학생 창업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업유형을 실전형, 혼합형, 특강형으로 나누고 수업유형에 따라 교육생이 수강 후 학습한 역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교육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좋은 창업교육의 표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의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업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 및 창업의지 영향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둘째 교육만족도와 창의성,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수업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 창업교육 수업유형의 정확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창업교육 효과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 변수를 통제하였고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정부는 창업지원을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가치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학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실전형 창업강좌와 혼합형, 특강형 창업강좌를 수강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기회인식, 자기효능감,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창업의지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해보고, 교육생의 창업의지 및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수업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실전 체험중심의 창업강좌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1. 교육만족도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육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교육만족도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교육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기회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수업형태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학교 내 창업교육 유형을 실전형, 혼합형, 특강형으로 구분하여 창업교육 수업유형에 따른 창업의지 영향요인인 교육만족도,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창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창업교육의 수업유형이 창업교육 수강 후 교육만족도, 창업의지 영향요인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 수업유형을 세분하여 비교분석함에 따라 창업교육이 지향해야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표준모델의 제안하고,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업 교육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용태(2018).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비교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49-58

Ernest Cadotte(2014). The use of simulation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outcomes, *Anna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2014*, 280-302.

- Heidi M. Neck, Patricia G. Greene and Candida G.Brush(2014). Practice-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using actionable theory, *Anna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2014*, 3-20.
- Michael H. Morris and Jeffrey B. Kaplan(2014). Entrepreneurial (versus managerial) competencies as driver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na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2014*, 134-151.